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공동체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주일 Ⅲ부 예배 후 본당에서

오늘 교구 총회 갖는다

오늘 8일(주) 주일 Ⅲ부 예배 후 본당에서 교구 총회를 갖는다. 교구총회는 먼저 총회를 통해 각 교구별 지도교역자와 교구일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 교구별 속회를 개최하여 인사교환 및 안건토의의 시간을 갖는다.

교구 위원회는 오늘 갖게 되는 총회는 일년간 교구살림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한해를 계획하는 일년에 단 한번 교구일꾼들이 모두 모이게 되는 자리인 만큼 각 일꾼들은 빠짐없이 오늘 총회에 참석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한 총회 후에 교구별로 갖는 속회 역시 본당에서 각 교구별로 준비된 팸말을 중심으로 모여 갖게 된다.

지난 일년동안 모든 교구일꾼들의 기도와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길 잃은 수많은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었다. 오늘 교구 총회를 통하여 내년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을 소중히 사랑하며 양육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은혜가 넘치게 기도한다.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잠2:10)

신약 성경 필사본 나왔다

-사라 전도회 회원 13명이 기록-

사라 전도회(회장: 한금희 권사) 교육부(부장 김중자 권사)는 지난 1년간 회원들에게 신약 성경을 한번 쓰는 일을 독려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 지난 주 교회에 바쳤다.

13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필사본은 65세가 넘는 노인들의 필체라기보다 인쇄체와 같이 또박또박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열매로 바쳐진 이 필사본은 후대에 길이 남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교회에서 신약성경 일독자에게 주는 컵을 하나씩 드리기로 하였다.

신약성경 필사본을 만든 이들은 김인순, 심계을, 이민화, 국산옥, 김중자, 배영애, 최금례, 최경애, 유후자, 허인숙, 박종민, 백영희, 탄금희(이상 13명)이다.

성탄절(수) 예배는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12월 25일 새벽 5시 · 오전 11시

성탄절(25일) 예배는 새벽 5시 그리고 오전 11시에 온 가족이 함께 드리게 된다.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드리는 성탄절 예배에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오전 11시 예배시에는 성탄절 감사헌금도 드린다. 이날 수요일 Ⅱ부예배는 갖지 않는다.

또한 12월 24일(화) 밤7시에 드리는 성탄절전야 예배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이날 산타클로스가 등장하여 착한 어린이들에게는 선물을 수여될 것이다.

농어촌 100교회 운동 후원 접수 중

현재 농어촌 교회는 이농현상과 도시화, 전통을 중시하는 한국 풍습에 의해 복음전파의 어려움으로 많은 교역자들이 솔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교회는 매년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돕는 농어촌 100교회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11월 17일자 순례자에 농어촌 100교회 운동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성도들이 고향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에 참여하여 오늘 순례자 4면에 1차로 선정된 농어촌 100교회 명단이 게재되었다. 아직 우리에게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다. 연말을 맞아 바쁜 일과 등으로 후원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한 성도는 사무국에 비치된 후원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교회는 더욱 많은 성도들이 형제사랑의 귀한 자리에 동참하여 고향을 위하여 기도하며 지키는 농어촌 교회 교역자들의 무거운 어깨의 짐을 일부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기도한다. 오늘 현재 205개의 교회의 신청이 접수되고 62개교회가 후원 확정되었다. 남은 교회는 후원자를 찾는 데로 본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를 향하여 자기를 깨끗하게" (요일 3:3)

2003년 순결서약식 갖는다

2003년 1월5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21세기에 들면서 우리 나라는 마스크의 발달과 더불어 급격한 물질만능주의의 확산과 가족간의 대화의 단절 등으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집을 나와 거리를 방황하며 성을 상품화하고 있다.

이렇게 세속화의 물결이 거센 이때 가정의 중요성과 함께 젊은이들의 순결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우리교회는 젊은이들이 말씀안에서 순결하게 살기 위해 매년 첫 주일에 순결서약식을 갖고 있다.

2003년 순결서약식은 오는 2003년 1월5일(주) 찬양예배시간에 갖게되며 순결서약식 준비를 위한 자세한 일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참가대상은 만 13세 이상의 아직 순결서약식에 참석치 않은 모든 미혼 남녀로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기 원하는 성도로 본인이 속한 교회학교 교사를 통하여 신청을 하거나 사무국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순결서약식을 마친 젊은이에게는 서약을 증명하는 증서와 함께 금반지가 수여된다.

	일시	장소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2002년 12월31일(화) 오후 8:00-10:00	웨스트민스터 홀
학생과 부모 기도회	2002년 12월31일(화) 오후 10:00-11:00	웨스트민스터 홀
순결 서약식	2003년 1월 5일(주) 찬양예배	본당

오늘 서리집사 · 찬양대 · 교구일꾼 임명

I · II · III 부 예배시간에

오늘 주일 I Ⅲ부 예배시간에는 내년 각 부서에서 섬김의 도리를 다하게 될 교회일꾼들을 임명하는 순서를 갖는다.

오늘 임명받게되는 교회일꾼은 서리집사와 찬양대 교구일꾼으로, 성도들이 참석하는 주일 I · II · III 부 예배시간에 임명을 받게 된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토록 부르심을 받은 교회일꾼들은 각자 처한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도록 기도로 준비하여 임명받도록 한다.

소신지서 강해-호세아

하나님의 아픈 마음

(호세아 11장 1 - 12절)



이중윤 목사

하나님은 의와 사랑을 원하십니다. 의가 없는 사랑과 사랑이 없는 공의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신자의 삶 속에는 항상 의가 있어야 하고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지만 그 가운데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진리를 말하지만 거짓 속에서 행하고, 의를 말하면서 그 속에 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부모는 그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찢어질 듯한 슬픈 마음을 갖게 됩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간 고멜 때문에 찢어지는 마음을 간직하게 된 호세아는 마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같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시고 찢어질 대로 찢어지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본 장의 메시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9절). 사람은 환경을 따라, 조건을 따라 자꾸만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1. 복 받은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1절).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이스라엘의 과거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2절).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했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달려가야 할텐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따라갔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은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치는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딴 길로 갔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4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사랑의 줄로 묶어 이끌었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부르심에는 '너는 내 백성이라'는 역사적 부르심과 실제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중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신 7:7-8).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우리의 위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 우리는 객관적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분이 이같이 바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어 바르게 걸도록 걸음을 가르쳐주시고, 안아주시며 적자와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거리의 여인이었던 고멜은 도무지 호세아를 남편으로 맞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세아의 아내가 된 고멜은 사랑의 귀중함을 잊어버리고 호세아를 멀리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는 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2. 거역하는 현재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5절).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결국은 앗수르의 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7절).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거짓으로 애위 싸며 진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따라가서 성공을 한 것 같고, 의미를 찾는 줄 알았으나 바람을 먹음과 같이 공허해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강국 앗수르를 따라간 이스라엘 앞에는 거짓과 포악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며 그들에게 아무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닥쳐올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3. 회복하는 미래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어 나의 공홀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8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우리는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배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호세아가 얼마간의 돈을 주고 고멜을 사온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삼으시면서 까지 댓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9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로 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임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사랑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들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영적 고향인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 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 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11절).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방해물을 헤치고 새처럼, 비둘기처럼 빠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하늘 집에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불교의 나라, 공산주의의 나라, 가난한 나라, 세속화된 나라들인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열리게 된 선교사 대회에 보내 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회에 참석할 우리 일행은 준비기도를 마치고 모든 일정을 점검한 후 성도님들의 기도 후원을 받으며 11월25일(월) 오후 8시 05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11월26일(화)부터 30일(토) 까지 태국과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인 선교사 대회와 3일간 베트남 현지교회와 한인교회의 방문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12월3일(화) 오전 8시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인도차이나의 복음화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주제를 갖고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5개국에서 사역하시는 한국인 선교사 140여명이 참석하여 이종운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신 가운데 열린 대회였습니다.

26일(화) 오후 7:30에 드린 개회예배 말씀(행1:6-8)을 통해 이종운 목사님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나라'는 영적인 나라, 진리의 나라, 능력 있는 나라, 국제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27-28일에는 '오늘의 위기와 내일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12가지 위기극복에 대하여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열강에 꼭 잠긴 선교사들의 요청으로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선교 대회장인 김정인 선교사가 간담 수술을 받고 3일만에 퇴원하여 순교의 정신으로 대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일행은 눈시울을 적셨으며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분은 지난 ALCOE V 대회 때 라오스 대표단을 인솔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인도차이나 한인 선교사 대회 방문 보고를 드립니다

김태기 장로

140여 명의 선교사들이 우리 이종운 목사님의 열강에 깊은 은혜를 받으며 청강하는 모습은 마치 서울교회의 김치 세미나와 목회자 세미나가 이국 사역지에서 개최되는 것 같은 감동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9일(금)에는 라오스로 이동하여 선교사들의 단합과 교제의 시간으로 축구대회를 갖고 라오스 한인회장의 환영만찬에 참석하여 사랑의 교제 시간을 통해 선교의 기쁨과 에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0일(토)일에는 태국을 경유 베트남으로 이동하여 12월1일(주)에 베트남 현지교회인 칸호이 교회(담임목사 팜비크)에서 9시에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매주 약 2,500명이 예배를 드리는 베트남에서 세번째로 큰 교회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종운 목사님은 비전 2020운동에 관한 설문을 통해 2020년까지 군부대 선교로 전 국민의 75%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였고 팜비크 목사님은 크게 도전과 은혜를 받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일행은 카노이 현지인 교회 예배를 마치고 사이공 한인 연합교회(담임목사 원양희) 11시 주일예배에 참석하였고 이종운 목사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는 로마서 4:17-25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12월2일(월)에는 월남에서 사역하시는 40분의 선교사들을 모시고 조찬과 함께 이종운 목사님은 목회 방침과 선교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선교여행을 통하여 다시금 선교에 대한 큰 도전을 받았으며 언어나 문화와 습관과 기후가 다른 이역만리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명감을 배우고 우리도 영혼구원에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바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전 세계 각처에 나가 계신 11,000여분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그리고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현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 드려야 할 것입니다.



2003년을 짊어지고 나아갈 자들 (II)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대학부 인재의(대학부 신임회장)

2002년도 한해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생각과 편견들을 제거하시는 해였습니다. 5년간의 대학부 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생각해 왔던 저의 모든 교만한 생각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내가 틀렸다고 하나하나씩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회 역시, 난 정말 아니라고, 절대 내가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을, 모든 대학부원 앞에서 보란 듯이 아니라고 보여주시며, 또 한번 저의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결국 전 다시 한 번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 더 이상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주 조금도 알아채지 못하는 바보 같은 존재이며, 미천한 존재이다. 아직도 나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토록 낮고 보잘것없는 저를 깨닫게 하신 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어둡고 미천한 자리가 아닌 대학부의 회장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생각에 또 한번 저는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체험으로 복되게 시작하게 된 이 자리

를 통해,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모든 대학부원들에게 흐르길 소망합니다.

대학부에서 보내게 되는 마지막 1년을 참으로 귀한 자리에서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기도 부탁 드립니다.

내년 한해를 통해 대학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평생을 보고 달려갈 소망과 비전을 세우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으며, 우리들의 모난 부분은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빛이 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오가는 말씀에 생명이 넘쳐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요셉(고등부 신임 회장)

먼저 부족한 저를 고등부 회장으로 뽑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등부 회장이 된 순간 뽐혔다는 기쁨보다는 부족한 제가 고등부를 이끌 수 있을지 두려움부터 앞섰습니다. 그래서 기권 할까도 생각했지만, 기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나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노래"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어떠한 계획이 있으셔서 부족한 저를 고등부 회장으로 세워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

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꼭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새 우선 계획을 꼭 이루고 말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꼭 이루고 말 것이라는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고등부를 이끌어 볼까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못한다 하여도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이는 우리지만 자라시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있듯이 저 혼자서는 고등부를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여쭙어보고, 기도하며, 고등부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부흥되는 고등부로 만들고 싶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고, 고등부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머리 맞대고 기도하며 고등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또한 고등부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한번에 다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차츰차츰 고쳐가며 더욱 좋아지고, 부흥되어 한층 더 성장하는 고등부로 만들도록 노력하고, 헌신 봉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등부가 다른 부서보다 모범이 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등부가 꼭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고등부의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되고, 행하여지며,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고등부의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협조와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도 100교회 후원현황

(12월 8일 현재, 다음호 계속)

번호	교회명	교역자	후원자
1	고양교회	김권환	이인선·남태순
2	군천리교회	박용덕	홍순복
3	굴암교회	최효임	권정철
4	금릉교회	권순태	스데반회
5	금평교회	양영삼	임상현·서익숙
6	낙원교회	석홍	이경인·허숙
7	내도중앙교회	정장현	교역자회
8	덕계교회	정용철	뵤뵤
9	동교교회	이청희	이동만·이은자
10	동화교회	전갑희	전기섭·원영애
11	둔명교회	류인복	전기섭·원영애
12	마중교회	최태환	뵤뵤
13	마장교회A	김명복	박정수·김경옥
14	마장교회B	주추신	김복녀
15	명계교회	박점용	이관규·이순영
16	모악제일교회	안영욱	조원장·오성애
17	반석교회	박건영	정동학·김복순
18	반송교회	권영복	루디아
19	방리교회	최규남	최영열·오창래
20	부남중앙교회	신덕만	오정수·이영희
21	분천중앙교회	김연복	윤용준·김명화
22	서록제일교회	김순덕	김유경
23	시흥로교회	김태양	백유기·허연숙
24	산들교회	최경수	비율
25	산야교회	이형근	박순옥
26	삼진교회	계용권	이영기·이영숙
27	상리교회	천광훈	오정수·이영희
28	서야교회	이규성	임홍수
29	송내교회	이윤빈	이철·김미영·이성화
30	신성교회	오준석	김재길·장영순
31	신암교회A	오진근	김경애
32	신암교회B	김애자	루디아
33	신촌교회A	권영관	박철훈·이경희
34	신촌교회B	송이길	스데반회
35	안계제일교회	허진	홍창배·권익순
36	압곡교회	서양수	신용식
37	양평교회	양성화	노영숙
38	연양신교회	오주철	임광식
39	여천동교회	정철기	최희시·김병호
40	영광교회	이양재	박두호·한성옥
41	오전교회	김기식	송인권·윤숙지
42	운암제일교회	김상중	안인호·이명신
43	율곡교회	엄산덕	황신의
44	원주농인교회	김의중	김중자
45	월송교회	김은진	서춘식·김진숙
46	월명성광교회	강용태	인대진
47	일산교회	이예춘	아브라함
48	주왕산교회	이희구	이능성·최영란
49	죽림교회	이강성	노승성·이영옥
50	진도주안교회	한용섭	노문환·장정화
51	천복교회	이환용	빌립
52	춘양농인교회	이중순	안드레
53	충도교회	이은자	왕경래·김정희
54	फल교회	이세규	베드로
55	화명장애인교회	김구열	베드로
56	황향교회	한덕순	비율
57	폭석교회	홍준기	비율
58	방축교회	송완영	이상근·김영림
59	모두교회	김승남	정무균·이영희
60	진리교회	이은복	뵤뵤
61	시산교회	김창수	스데반
62	송천교회	김동판	조철기·김영란

순례자연말기획

크리스찬 네티즌이 되자

많은 이들이 인터넷을 인류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 즉 농업혁명, 산업혁명에 이은 세 번째의 혁명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실제 인터넷 사용자의 엄청난 확산 속도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 같은 주장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98년 서비스개시 이후 4년 만인 지난 10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1천 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초고속인터넷은 가구 당 1회선이 보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3가구 중 1가구 꼴로 초고속인터넷이 보급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사이버스페이스는 매력적인 신대륙으로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으며 사이버시대의 도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됐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이버스페이스는 낙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시도 인터넷을 떠날 수 없는 이른바 '인터넷 페인(Pain)'의 비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이들을 양산하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살사이트와 음란 채팅, 언어 파괴, 게임중독 더 나아가 인터넷은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접하는 가장 손쉬운 도구로써 많은 이들을 포르노에 병적으로 탐닉하는 호색가로 전락시키고 범죄행위까지 조장하는 등 인터넷의 심각한 역기능들은 우리의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하다.

더욱이 사탄은 인터넷을 통해 각종 음란물과 폭력물을 유포시키며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화 시키기 위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음란물과 폭력물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문화가 심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얼마 전 천국의 문 집단자살 사건을 통해 입증되었듯이 인터넷이 사교집단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음란, 폭력물들과 사교집단의 은밀한 유희로 인해 병들어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이버스페이스 상에서의 치열한 영적 전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나라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캐나다의 2배, 미국의 4배, 일본의 8배에 이르는 것으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인터넷 강국으로 꼽히는 나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축복이 아닐까, 우리가 인터넷을 의의 도구로 선용한다면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한없이 써어가는 사이버스페이스를 정화하고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어 많은 이들이 주를 만나 하나님의 나라가 보다 속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 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사이버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시대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여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도구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선교와 전도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이제 우리들의 몫 일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한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영적 전사, 크리스찬 네티즌이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김시환(편집부)

· 다음주일에 2003년도 교회학교를 성길 교사가 임명된다.

· 12월 10일(화)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20개교회 연합합창단의 메시아 연주회가 있다.

스데반회 총회

12월13일(금) 오후 7시

우리교회 안수 집사들의 모임인 스데반회가 총회를 열고 2002년 일년을 결산하고 친구임원진을 교대하는 총회를 연다. 총회는 13일(금) 오후 7시 만나홀에서 회원 상호간의 친교의 시간을 갖고 난 후 502호 실로 자리를 옮겨 이종운 목사를 모신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0일(화)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위원회, 12일(목) 대치동 목회자 모임에 참여한다.
- 이완형 장로·박연순 권사 (10교구) 독송자
- 이동만 집사·이은자집사 : 2교구로 동현 APT6동 1207 6218-8766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8시 10분 ~ 8시 4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감사하는 성도·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2. 연말연시를 보람있고 뜻있게 지낼 수 있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입시생,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12월 19일(목)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